

방언 속에 깃든 관용적 표현

김봉국 · 부산교대 국어교육과 교수/국어생활연구원 부산 분원장

우리말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특정한 대상이나 특정한 지시물에 대한 다양한 인식 차이가 사람마다, 지역마다 달리 반영된 경우가 흔히 있다. 가장 좋은 예가 방언에 따른 차이일 것이다. 방언의 차이는 흔히 음운·어휘·문법 및 관용적 표현 등에 걸쳐 나타나지만 특히 음운과 어휘 상에서 그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문법상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음운·어휘·문법적인 특징 못지않게 관용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방언이나 지역어에 따른 차이가 종종 나타날 수 있는데, 국립국어원의 주관으로 지역어 조사 사업에서 발간된 《지역어 조사 질문지》에는 그동안 방언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관용적 표현과 관련된 항목이 들어 있어 관심을 끈다.

그중 항목 번호 41113에 표제어로 ‘개나 소나’가 실려 있는데, ‘개나 소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나 관용구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대신 동일한 의미를 갖는 ‘도나캐나’가 등재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도나캐나’에 대해 품사 항목에서 부사로, 뜻풀이 항목에서 ‘하찮은 아무나. 또는 무엇이냐.’로 처리되어 있다. 그리고 예문으로 ‘도나캐나 마구 지껄여 대다.’와 ‘옷 장사가 잘된다고 하니 도나캐나 나선다.’가

제시되어 있다.

‘도나캐나’의 사전적 의미에 좀 더 뜻을 덧붙이자면 주로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별로 보잘것없는 아무 사람’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옷가락의 호칭으로 쓰이는 용어 ‘도, 개, 겐, 옷, 모’에서 각각 ‘도’와 ‘개’를 뜻하는 ‘도’와 ‘캐’는 ‘옷’이나 ‘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또한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인식이 언어 표현에 반영되어 관용적인 표현으로 굳어진 것이다.

한편, 2007 한민족 언어 정보화 통합 검색 프로그램에서 ‘도나캐나’를 검색하면 ‘국어 어문 규정’과 ‘한국 방언’에 각각 하나씩 검색이 된다. ‘국어 어문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도나캐나	국어 어문 규정
표기법	도나캐나(O), 되나캐나(X)
관련항	표준어 규정 제2장 제4절 제17항
예문	옷 장사가 잘된다고 하니 도나캐나 나신다.
상세 설명	‘도나캐나’가 ‘되나캐나’에 비해 널리 쓰이므로 ‘도나캐나’를 표준어로 삼는다. 표준어 규정 제17항은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되나캐나’를 버리고 ‘도나캐나’를 표준어로 삼는다. ‘하찮은 아무나. 또는 무엇이냐.’라는 뜻이다. 약간의 발음 차이로 쓰이는 두 형태 또는 그 이상의 형태들에서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형태 하나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복수 표준어와 대립되는 처리인데,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려면 그 발음 차이가 이론적으로 설명되든가, 두 형태가 비등하게 널리 쓰이든가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처리한 것들은 두 형태를 다 표준어로 인정하면 국어를 풍부하게 하는 쪽보다는 혼란을 일으킨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서 단수 표준어로 처리한 것이다.

‘한국 방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도나캐나	한국 방언
품사	부사
표준어	도나캐나
의미	아무렇게나 마구
방언형	
되나캐나	<전남>[담양]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어에서 ‘되나캐나’는 일부 지역 방언에서 사용되지만 ‘도나캐나’가 널리 사용되므로 ‘되나캐나’를 버리고 넓은 분포를 보이는 ‘도나캐나’를 표준어형으로 정해, 이를 사전에 등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일반인들에게는 표준어형인 ‘도나캐나’가 오히려 낯설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오히려 동일한 의미를 갖는 관용적 표현 ‘개나 소나’가 흔히 사용되며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동일한 의미의 ‘개나 걸이나, 쥐나 개나, 기나 고둥이나’를 사용하기도 한다.

필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어릴 때 ‘지나 개나 다 따라 한다.’ 또는 ‘지나 개나 차 타고 다니네.’에서 ‘지나 개나’라는 말을 자주 들곤 하였다. 그 당시 ‘지나 개나’란 말을 듣고서 대략 문맥적인 의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했었다. 훗날 국어학을 공부하면서 ‘지’가 경상도 말의 ‘쥐’란 사실을 알고서 그때서야 ‘지나 개나’의 형태와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었고, 더불어 필자가 살던 곳에서는 표준어형 ‘도나캐나’에 대한 방언적 표현으로 ‘지나 개나’를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관용적 표현은 지역에 따라 방언 차를 보여 주지만, 지금까지의 방언에서 관심 분야는 주로 음운·어휘·문법 분야에 집중되었고 관

용적인 표현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가는 분야였으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¹⁾ 게다가 관용적인 표현에 대한 조사 자체가 쉽지 않은 것도 관심을 덜 갖게 된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다행히도 지역어 조사 사업에서 관용적 표현에 대한 항목들이 여럿 실려 있는데 그중 우리의 관심 대상인 ‘도나캐나’에 대한 방언적 표현을 몇 가지 유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① ‘도나 캐나’ 계열

(1) 떠나 캐나 <강원>[삼척]

되나 캐나 <전북>[임실]

때나 캐나 <경북>[안동]

대나 캐나 <경남>[산청], <충남>[대전]

(2) 걸이나 캐나 <충남>[논산]

② ‘캐나 소나’ 계열

(3) 캐나 소나 <경기>[화성, 포천], <경남>[창원], <경북>[의성],
<충남>[서산], <제주>[한경]

(4) 쥐나 캐나 <전북>[남원], <전남>[곡성, 보성], <경남>[울산]
지나 캐나 <경남>[창녕]

(5) 가:나 고통이나 <전남>[보성]
가:나 고통이나 <전남>[영암]

이 자료를 통해서 표준어형 ‘도나캐나’의 지리적인 분포까지 정밀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① 옷가락의 호칭과 관련된 계열인 ‘도나 캐나’ 계열, ② 동물의 명칭과 관련된 ‘캐나 소나’ 계열로 유형화할 수 있다.

1) 이병근(2001: 25-26)에서는 관용적 표현이나 연어적(連語的) 표현에서 방언에 따른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방언 연구 과제 중 하나로 관용적 표현이나 연어적 표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①의 유형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설날 놀이 중의 하나인 윷놀이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빌려 와 언어 기호로 표현한 예인데, (1)은 ‘도’와 ‘개’가, (2)는 ‘개, 걸’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나캐나’는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거나 듣고, 접할 수 있는 대상물을 기초로 삼아 이를 그 의미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이 관용적 표현에 들어 있는 구성 성분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남자나 여자, 어린이나 노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기던 윷놀이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전통 놀이이므로 그 구성 성분은 ‘도나캐나’의 관용적 의미를 표현하기에 적당했을 것이다.

(1)의 경우는 지리적으로도 넓은 분포를 보여 주고 있는데, 주된 구성 성분은 ‘도’와 ‘개’이다. ‘도’의 방언형으로는 ‘뒨, 때, 되, 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개’의 경우는 표준어형에 들어 있는 ‘개’와는 달리 모두 ‘개’로만 나타난다.²⁾ ‘되’는 ‘도’에 접미적 성격을 갖는 ‘-이’의 결합으로 형성되었으며,³⁾ 입술이 둥근 모음 ‘외’가 실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대’로 실현된다. 그리고 ‘되’에 어두 경음화가 실현되어 ‘뒨’이 되고, 입술이 둥근 모음 ‘외’가 실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때’로 실현된다. (2)의 예는 충남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윷가락의 호칭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 개, 걸, 윷, 모’ 중에 ‘윷’이나 ‘모’에 비해서 ‘도, 개, 걸’이 좀 더 하찮다고 인식되고, 이러한 인식의 반영이 언어 표현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 지역에 따라서 ‘도, 개’를 선택하기도 하고, 충남 논산 지역처럼 ‘개, 걸’을 선택하기

2) 윷가락 호칭에서 쓰이는 ‘개’가 ‘도나캐나’에서는 왜 ‘개’가 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중세국어에서 ‘고ㅎ, 갈ㅎ’과 같은 ㅎ 종성 체언은 현대국어에서 ‘코, 칼’로 나타나는데, ‘개’는 ㅎ 종성 체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가 된 음운론적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윷놀이의 ‘개’는 동물 ‘개’를 뜻했기에 ‘개’의 중세어형인 ‘가히’에서 어중 ‘ㅎ’이 어두 ‘ㄱ’에 영향을 주어 ‘개’로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체언 어간 말에 접미적 성격을 갖는 ‘-이’에 대해서는 함북 육진 방언을 대상으로 한 광충구(1994: 82-83)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접미적 성격을 갖는 ‘-이’에 의해 형성된 체언들은 특히 함북 육진 방언을 포함하여 강원도 영동 방언, 경북 동해안 방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도 하는 것이다.

②의 유형은 우리의 전통 생활이나 해당 지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동물들이 관련되어 있다. (3)과 (4)의 유형에서 보이는 ‘개, 소, 쥐(지)’는 모두 육지 동물로 농경 생활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5)의 유형에서 보이는 ‘기:(게)’나 ‘고둥’은 모두 바다 동물로 바닷가 생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동물을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 지리적 특성, 생활적인 특성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관용적 표현의 구성 성분으로 ‘개와 소’, ‘쥐와 개’, ‘게와 고둥’ 등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농사를 주로 짓는 농경민에게는 주위에 흔하면서도 생활에 필요한 동물이 ‘개’와 ‘소’였기에 (3)과 같은 유형이 선택되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쥐’나 ‘개’가 너무 흔하면서도 귀찮거나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에 ‘쥐’나 ‘개’를 선택했을 것이다. 바닷가 생활이 삶의 일부인 사람들이나, 어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 가려 했던 어민들에게는 그 지역에서 흔히 보거나 먹을 수 있는 것이 ‘게’나 ‘고둥’이었기에 ‘게’와 ‘고둥’을 관용적 표현의 구성 성분으로 가져왔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를 기호화할 때 그 기호화에 있어서 언어 인식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 대상물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관용적 표현의 한 사례는 언어의 자의성이 실로 다양하게 나타남을 보여 주는 경우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관용적 표현의 한 예인 표준어형 ‘도나캐나’를 통해 그것의 방언 분포, 지역에 따른 표현의 차이, 그리고 그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방언에 따라 관용적인 표현인 ‘도나캐나’가 여러 형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생활적 특성을 언어 표현 속에 적절히 융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사람들이 의미는 동일하게, 그 언어 형식은 그 지역의 문화, 생활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그렇게 인식된 차이를 그대로 언어 표현에 반영함으로써 방언 속에서 한층

다채로운 관용적 표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 문헌

곽충구(1994),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 국어학총서 20, 태학사.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2005-2009), 《지역어조사보고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2006), 《지역어 조사 질문지》,
국립국어원.

이경진(2003), 《강원도 영동 남부지방 방언》, 예문사.

이병근(2001), 방언과 방언학, 《방언학 사전》(방언연구회 편), 태학사.

